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2003년 6월 10일 (화)

발행인/이종현 편집/서종학

주 소/(701-825)대구시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2. 대구지부장 이종현 교수 수술 | 1쪽 |

II 아티클

- | | |
|---|-----|
| 1. UFO와 우주인에 대한 의견 - 이은일 | 2쪽 |
| 2.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8) 본론 - 옥봉흠 | 4쪽 |
| 3. The BIBLE Comes Alive(5) by Clifford Wilson- 이종현 역 | 6쪽 |
| 4. 창조단상 (8) 기린의 목이 긴 까닭은?- 박종환 | 11쪽 |

인사말

평안하십니까? 학교의 연구실 앞 동산에는 빠찌가 익어있고, 집 앞 정원에는 앵두가 열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몸이 불편해진 제게는 세상이 여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마 완전히 치료가 된 후에는 제게도 세상이 다시 여전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제나 옛적처럼 여전하지 않을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지금은 그 끝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현 올림



1. 6월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월(6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일시: 2003년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창조과학회 사무실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47-1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Geology: A Study Guide to fossils, Formations and the Flood (지질학)"

발표: 길소희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2. 대구지부장 이종현 교수 수술

대구지부장이신 이종현 교수님이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술예정일은 6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할 병원은 영신병원입니다.

영신병원: 053-811-3400



UFO와 우주인에 대한 의견

우주인과 UFO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화에서 UFO와 우주인은 단골 메뉴입니다. 과연 우주인은 있을까요?

1. 우선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봅시다.

성경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지구의 창조목적도 인간이 거할 거처로써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이사야 45:18)”

성경은 인간의 죄, 타락, 심판, 구원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이뤄지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동산의 추방,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은 모두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이 심판대 앞에 서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땅이 된다는 것도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류처럼 지성을 가진 존재로서 죄를 범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시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인이 있어서 사람처럼 지성과 문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셔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또한 지구에 사는 인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지구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구 이외 다른 곳에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지구의 심판이 곧 우주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근거할 때 사람 이외 다른 지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과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UFO와 외계인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UFO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잘 못 인식한 구름, 비행기, 운석 등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곧 UFO에 발달된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있다는 해석하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UFO가 관찰된다는 것과 외계인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UFO 현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UFO 연구자들은 우리의 과학기술과는 전혀 다른 비행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나는 다양한 물체들에 대한 이런 목격담을 근거로 매우 발달된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조정하는 비행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UFO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적인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다양한 빛의 형태로 나타나고, 때를 지어 움직이기도 하고, 현대의 과학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비행능력을 보이는 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세에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생각하면 이런 영적인 존재가 사탄의 계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계인을 직접 목격하거나 접촉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접촉자들의 대부분은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체험과 주장의 진위 여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출현한 외계인의 모습도 높은 지능, 훌륭한 성품 아름다움을 갖춘 인류의 모습을 가진 경우부터, 키가 작고 추한 난쟁이 모습, 짐승이나 로봇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인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주장부터 강간당하고 혼혈아를 낳아 빼앗겼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로즈웰 UFO 추락사건때 수습된 외계인의 사체라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개인적 신비적 체험에 대한 확신 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X 파일이라는 영화에서 나타났듯이 미국 정부가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면 그 많은 증인들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적인 증거가 희박한데도 쉽게 믿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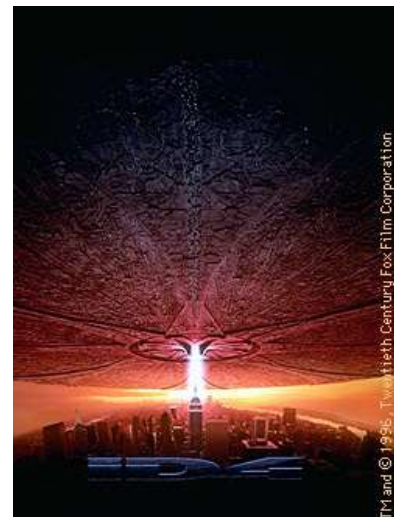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4절)”

요즘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보았고,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사진에 찍혔다고도 합니다. 이런 귀신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흥미거리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UFO와 외계인은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FO와 외계인 문제도 귀신 문제와 같이 영적인 문제이지 과학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 문제와 달리 UFO와 외계인 문제를 과학으로 다루는 것은 진화론 때문입니다.

3. 진화론과 외계인

현재까지 우주에 대한 조사 결과 지구 이외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계의 생명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무기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히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오랜 시간을 지나 우연히 생명체가 되었다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무기물들이 우연히 유기물이 될 수 있고, 유기물이 우연히 생명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기물이 우연히 유기물로 합성되는 것은 자연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유기물이 우연히 생명체로 합성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체는 저절로 합성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체를 만드신 분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진화론의 영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넓은 우주에 지구처럼 생명체를 탄생시킬 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외계인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중에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우연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가이아 이론을 제창하기도 하고, 지구에서 저절로 생명체가 진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외계로부터 생명체의 씨앗이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외계인이 와서 지구에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UFO 현상을 이런 자신들의 생각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진화론은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믿음체계이듯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생각도 믿음에 불과합니다.



4. 과학적인 분별, 영적인 분별

외계인과 UFO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성인, 목성인 등을 주장하다가 화성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 된 이후에는 다른 은하계에 존재하는 외계인이라는 등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흥미 있는 현상 등이 있다는 것과 그런 현상의 원인을 외계인으로 돌리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귀신, 외계인 등 많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여기도, 저기도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열매로 분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해 보여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듯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게 보여도 그 열매가 무엇인지 잘 보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런 주장이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것인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UFO와 외계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우주인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음난하고 더러운 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5. 요약

- 1) 외계인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외계인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며, 예수님의 재림도 우주적 사건일 수 없다.
- 2) 지구이외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 3) 진화론은 우주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생명체가 우연히 합성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4) 말세가 될수록 신비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귀신, UFO 등도 이런 영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5) 영적인 분별이 중요해 진다. 그런 주장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잘 보면 그런 주장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데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 **창조**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8) 본론 7. 성경에 나타난 수의 상징
 옥봉흙 (산업정보대 교수, 성동교회 장로)

◎ 5 수론(數論)

5를 나타내는 말에는 다섯의 의미인 기수 ‘하메쉬’(חמשה)와 다섯째를 의미하는 서수 ‘하미쉬’(חמישי)가 있다. 복수 형태인 ‘하밋שמ’(חמשים)은 50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5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상징한다. 더불어 5의 배수인 50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유대교의 절기인 희년과 죄의 참회와 용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숫자5는 다섯 개의 손가락,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샤넬 넘버 5’ 등처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중심적인 수로 등장한다.

특히 동양에서 숫자 5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갖추어진 완전함을 뜻하는 수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五覺, 五感)이나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5장(五臟), 눈, 혀, 몸, 코, 귀의 오관(五官) 등은 대표적인 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5를 3+2, 즉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경배,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했다.

5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히브리어는 창문, 바람, 기도 등의 의미를 가진 알파벳인 ‘헤’(ה : ח)와 헬라어 알파벳인 ‘엡실론’(εψιλων, ε : E)이 있다. 엡실론은 5뿐만 아니라 5,000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섯을 의미하는 헬라어로는 ‘펜테’(πέντε)가 있다. 5를 의미하는 영어의 펜타(penta)가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특히 이 단어에서 파생한 ‘펜테콘타’(πεντήκοντα)는 ‘50’을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50번째’ 라는 의미를 가진 ‘펜테코스토스’(πεντηκοστός)의 여성형인 ‘펜테코스테’(πεντηκοστή)는 오순절이라는 뜻이다(행2:1-4, 20:16, 고전 16:8). 성령강림절을 뜻하는 영어 ‘Pentecost’ 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참고로 히브리어의 열네 번째 알파벳인 눈(י : ין)은 ‘물고기’(fish) 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숫자로는 ‘50’을 나타낸다. 또 50이라는 수는 유월절이후 50일째 되는 절기인 오순절(五旬節)을 가리킨다(행2:1).

구약 성경에서 보면 <5> 혹은 <다섯>이란 숫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곧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성막(聖幕)을 만들 때

그 양장(仰帳) <5>섯>폭을 서로 연하며 (출 26:1-3)

조각목(阜角木)으로 띠를 만들며.....<다섯>으로 하고 (출 26:26-29)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출 26:37)

조각목의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이며 (출27:1)

세마포의 고가 <5>규빗이며 (출27:18)

번제단의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이 되게 하라”(출38:1)고 하였다.

그리고 “처음 남자를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고”(민 3:46-47)

화목제물(和陸祭物)로 수양 <다섯>과 일년 된 수양 <다섯>이며(민 7:17)

“소나 양을 도적질했으면 <5>배로 갚고” (출 22:1)

“하나님 자녀 <다섯>이 이방 원수 백을 쫓고” (레 26:8)

“오순절과 회년(禧年)은 <50>일과 <50>년이다“ (레 23:16, 25:10-11)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5>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恩惠: wonderful grace)를 상징한다. 광야에서의 성막은 <5>수로 표시되어 도움 받을 길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는 기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5>수의 공통 의미는 ‘은총(恩寵)’이며 ‘구속(救贖: REDEMPTION)’이다.

◎ 6 수론(數論)

6을 나타내는 말에는 히브리어로 여섯을 의미하는 기수 ‘쉐쉬’(שש)와 여섯째를 의미하는 서수 ‘쉬쉬’(ששש)가 있다. 6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히브리어의 여섯 번째 알파벳은 ‘와우’(ו : וו)다. 하지만 6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헬라어 알파벳은 없다. **사람이 제 6일에 창조되었기에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수가 됐다.** 이 6수는 완성을 의미하는 7수를 지향하고 있지만 하나가 부족한 수다. 그래서 6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의미하고, 인간의 미완성의 슬픈 상태를 반영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6이라는 수가 인간에 대한 사단의 영향력과 관계있다고 보기도 한다. 느브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 세운 금신상의 크기가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이라는 점에서 ‘짐승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경의 6은 여섯째 날 지음 받은 인간의 영·혼·육이 완전히 타락한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는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 라고 하면서 666이라고 기록한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계13:18). 곧 **666은 여섯째 날 지어진 사람의 가장 큰 반역과 가장 큰 심판을 받아야 할 타락한 인류 역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로 60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버팀목 또는 받침대 (support. prop)등을 나타내는 ‘싸메’(ס : סמ)이며, 헬라어 알파벳은 ‘크시’(Ϟ : ϟ)다

구약성경에서 보면 <6> 곧 <여섯>이란 숫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너희는 <6>년을 섬겼거든 제 7년에는 자유케 하라” (신15:12)

“땅은 <6>년 동안 계속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출 23:10)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들의 <여섯>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욥5:19)

“법궤(法櫃)를 멘 사람들이 <여섯>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삼하6:13)

그리고 골리앗은 <6>척 장신이며 (삼상17:4) 느브갓네살이 세운 동상은 고가 <60> 규빗이고 (단 3:1) 어떤 거인은 <6>손가락에 <6>발가락이 있었다(삼하 21:20). 이와 같이 <6>은 <7> 즉 완성을 목적하고 있으나 부족하다.

인간 창조가 제 <6>일에 지어졌고 그래서 <6>은 인간의 표시 숫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6의 어떤 배수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6>수의 공통의미는 ‘인간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의 슬픈 상태를 반영하는 ’인간 수(人間 數)이다. (다음 호에 계속)

The BIBLE Comes Alive(5) by Clifford Wilson

방갈로어인(Bangalore Man)

이 사진은 1952년에 인도 남부의 방갈로어에서 내가 찍은 것이다. 사진 속의 사람은 그 정체성이 잘 알려진 사람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은 그의 배경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에겐 “보호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불행하게도 이 불쌍한 기형인은 많은 웃음거리의 표적이 되었다.

방갈로어인은 빠진 꼬리도 아니고 전이형태도 아니라,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거의 없게 되어버린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 어떤 아이들은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나기도 하고, 손이 없는 채로 태어나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뇌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도 많이 알려져 있다. 방갈로어인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빠진 꼬리가 아니라, 분명한 인간이지만 기형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전이형태라고 알려진 모든 경우에 완전한 원숭이 아니면 완전한 사람이다. “빠진 꼬리”와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유전자 이상을 지닌 사람

Clifford Wilson 박사가 1952년에 인도의 방갈로어에서 이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 그는 심각한 유전자 이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람이다. 그는 원숭이-인간이 아니라 지독한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방갈로어인(Bangalore Man) 한번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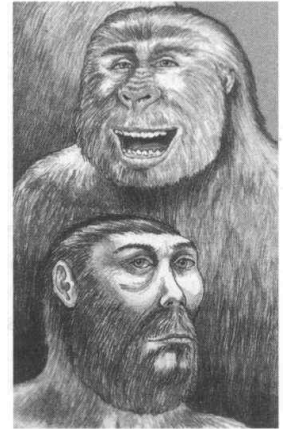
한 신문기자가 내 강의를 듣고, 내가 네안데르탈인의 쌍둥이 형제를 제시했다고 진술했다.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굴한 네안데르탈인은 진짜 사람이었으며, 그도 또한 기형이었다. 그 당시에 그 기자는 방갈로어인이 “빠진 꼬리”라고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방갈로어인은 보통 사람의 능력에 아주 미치지 않는다. 팔이나 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듯이, 이 사람은 거의 두뇌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는 사람이다.

한때 유행했던 이름인 자바인, 필트다운인, 네브라스카인, 하이델베르크인(Heidelberg Man), 로데시아인(Rhodesia Man), 북경인(Peking Man) 등등은 인간의 진화를 증거하는 “빠진 꼬리”의 증거로써 사용되었었다. 요즘 그들은 고생물학 논쟁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다. 오늘날은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 호모 싸피엔스라고 범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빠진 고리”가 한쪽으로 치워졌을 뿐 아니라, 연대도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 예가 “Keilor Man”인데, Keilor는 호주의 멜버른 변두리의 근교에 있다.

거기서 두개골이 발견되었을 때는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빠진 고리”를 발견했다고 큰 소리로 떠들었으며, 그 초기 인간의 나이가 15만년이라고 했다. 탄소연대측정을 제대로 해보고 나서는 잠정적으로 새로운 나이인 9,000년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있다.



길가메쉬 서사시(The Gilgamesh Epic)

길가메쉬 서사시는 12개의 서판에 쓰여있으며, 바빌론의 창조 서사시인 *Enuma Elish*와 마찬가지로 니네베에 있는 앗수르 왕 아쉬르-바니-팔(Ashur-Bani-Pal)의 서고에서 발견되었다. 홍수의 기록은 11번 서판에 들어있다. 창조 서판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서사시의 다른 조각들도 모두 알려져 있는데, 아쉬르-바니-팔의 궁전에서 나온 다른 사본들보다도 연대가 수백년 앞서며, 모세 시대보다도 더 이전이다. (모세는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기록된 서판들로부터 창세기 기록을 수집했을 것이다.)

이 서판의 기록은 성경의 홍수 기록과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창조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록이 훨씬 우수하며, 역사적으로 수용할 만 하다. 사실상, **길가메쉬 서사시**의 이야기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미신의 증거가 있고, 창세기의 기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신 같지 않은 행동들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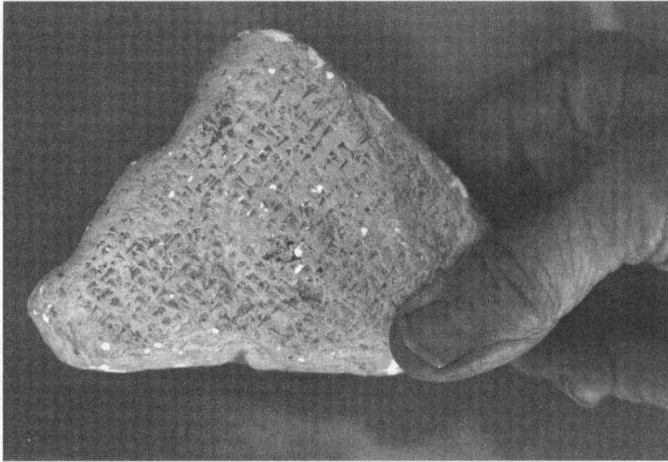
그것은 위엄있고,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창세기의 기록과 매우 다르다. 성경의 기록에는 미신이나, 마술 또는 괴상한 부조리 같은 것들이 없다. 성경은 직선적이며, 사실인 이야기이다.



길가메쉬의 서사시

이것은 BC 625년경에 죽은 니네베의 아쉬르 바니팔 왕의 앗수르 궁전에서 발견한 길가메쉬 서사시이다. 형태는 조잡하지만, 대략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다.

므깃도(Megiddo)에서 발견된 길가메쉬 서사시의 조각



므깃도에서 발견된 길가메쉬 서사시의 조각

이것은 약 BC 1,400년경에 비옥한 초승달을 지나 이스라엘의 므깃도로 운반되어 왔음이 분명하다.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기록이 적힌 점토 서판이 모세의 손에 들어왔으며, 모세는 그것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성경의 첫 부분 다섯 권의 책인 모세오경으로 포괄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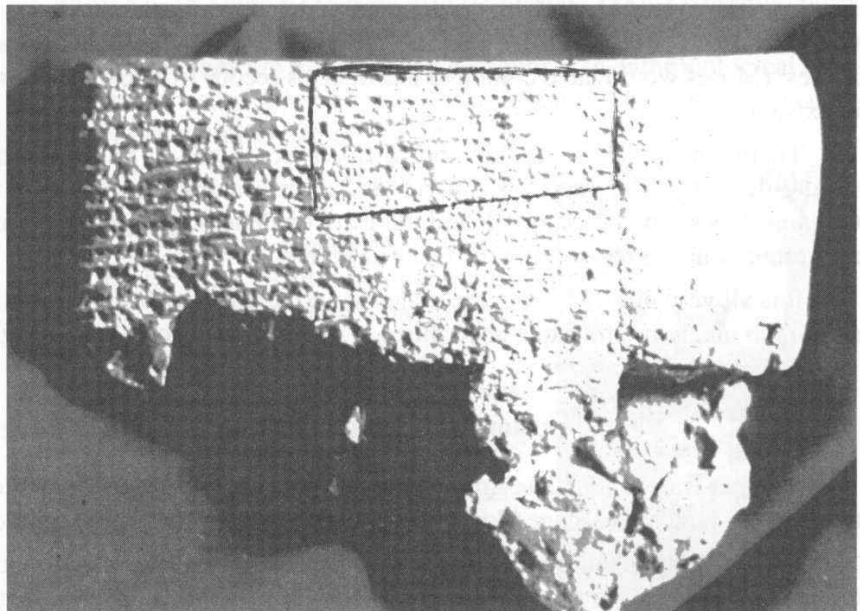
길가메쉬 서사시의 또 다른 조각이 이스라엘의 도시인 므깃도(Megiddo)에서 발견되었다. 므깃도는 신약성경의 표현으로 “아마겟돈”(Armageddon)인데, 문자적 의미는 므깃도 산지(Har Megiddo)이다.

그 조각은 고고학의 폐물 더미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 연대를 약 BC 1,400년으로 본다. 즉, 대략적으로 모세의 시대이다.

바빌론의 이 길가메쉬 서사시 조각이 비옥한 초승달을 지나서 운반되어 왔다면, 역시 아브라함도 우를 떠나 하란으로 여행할 때 창세기 기록을 운반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니푸르(Nippur)에서 발견된 홍수 서판 조각

오른쪽 사진에서 검은색 외형선의 영역은 홍수에 관한 기록이다. 그것은 길가메쉬 서사시와 다른 판(version)이다. 배의 크기가 크다고 기록된 점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야기가 주목된다. 그것은 홍수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홍수이야기가 있으며, 그 중에 약 30개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어떤 것은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상당히 근접한다. 사실상, 성경의 이야기가 원본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니푸르에서 나온 홍수 서판

이 조각은 아브라함이 나왔던 곳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있는 니푸르에서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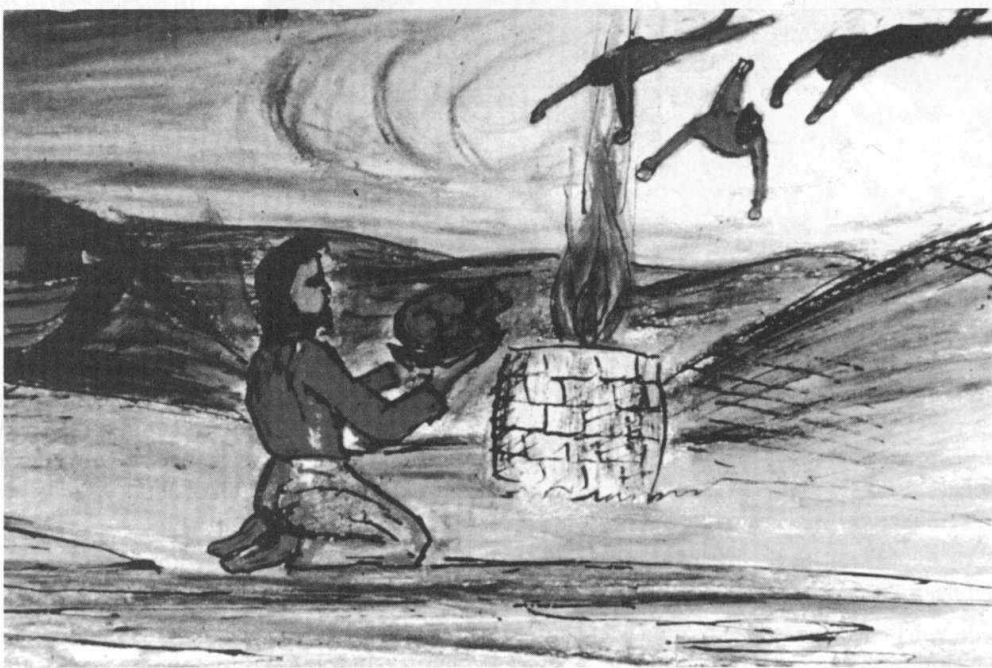
올브라이트(W. F. Albright)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성경의 기록에는 고풍의 특색을 담고 있는데, 설형문자 자료원으로 보존된 그 어떤 메소포타미아 판(version)보다도 연대가 앞선 것이다.” 그러한 진술은 이들 초기의 창세기 기록의 확실성을 설명해 준다. 성경의 기록은 바빌론 서사시의 정제된 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빌론 기록이 성경 원전의 왜곡이다.

올브라이트 교수는 성경 기록에 대해 그렇게 높은 관점을 항상 가졌던 것은 아니므로, 그의 정직한 재평가는 일부의 관점이 초기 창세기 기록을 향해 변화했다는 인식으로써 중요하다. 그는 여러 가지 설형문자와 기타 고대 문자의 선도적인 언어학자로서 유명했다.

“신들이 파리처럼 나아왔다”

바빌론의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홍수의 물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신들이 무서워했다고 적혀있다. 그 서사시는 신들이 “개처럼 움츠렸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바빌론 신들은, 몇 마리의 야생동물을 인간에게 풀어주면 되었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한 격렬한 조치를 받게 된 데 대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창세기에는 그러한 언급이 있을 수가 없다!

홍수의 물이 가라앉았을 때 바빌론의 노아인 우트나피쉬티(Utnapishtim)이 방주에서 나와서 신들에게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홍수의 물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들이 인간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물을 향해 파리떼처럼 나아왔다고 적혀있다.



“신들이 파리처럼 나아왔다”

괴기한 길가메쉬 서사시는, 홍수의 물이 올라갔을 때 신들이 개처럼 움츠렸으며, 우트나피쉬티 (“바빌론의 노아”)이 제공한 제물을 향해 파리처럼 나아왔다고 말한다.

신들이 공포를 느낀다? 개처럼 움츠린다? 인간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 할 만큼 배고프다? 이 얼마나 믿지 못할 일인가!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놀라운 이야기보다 훨씬 열등한 것이다. 올바르게 의롭다는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창세기의 기록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노아의 방주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노아의 방주는 항상 호기심을 끈다. 노아는 길이가 300큐빗, 폭이 50큐빗, 높이가 30큐빗인 배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다. 초기 시대에는 바빌론과 이집트와 히브리 단위 사이에 큐빗에 대한 척도가 서로 달랐다. 사실상, 히브리인들 사이에도 두가지 다른 척도가 있었다. 하나는 긴 큐빗으로 20.4인치(에스겔 40:5)이며,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실로암 굴에 새겨져 있는 척도가 이를 증거 하듯이) 보통 사용하는 큐빗인 17.5인치 정도이다.

이 배는 전체 중량이 14,000톤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며, 크기도 현대의 대양 정기선 정도 되는 큰 배를 건조하기 위해 인부들을 고용했을 것이다.

방주에 관하여 인기 위주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 있기도 하였지만, 수세기 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아라랏산 기슭에 있는 수도원은 방주에서 발견한 것으로 짐작되는 많은 공예품들을 보관하고 있다. 그 수도원은 1840년에 일어난 산사태로 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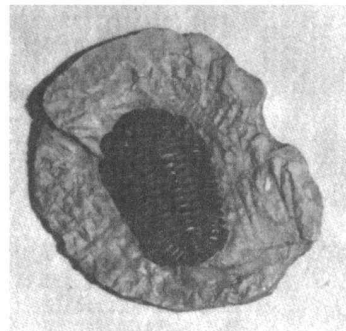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기록은 분명히,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으며, 노아와 그의 가족 및 동물의 대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주와 같은 배가 필수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 때에는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었다(창세기 7:19).

화석화된 삼엽충

이것은 삼엽충이다. 그것이 생겨난 것은 (역시 짐작으로 하는 말이지만) 3억년 전으로 짐작하며, 세 개의 앞 모양으로 된 생물이다. 그러나 삼엽충은 다양한 지층에서 발견되며,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공예품과 함께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지표가 되는 연대 시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사실상 많은 생물들이 홍수의 결과로 죽었다. 홍수의 참상 이후 수세기 동안에, 방주에서 나왔던 많은 종류의 체격이 큰 동물들이 (한동안은 살아남아서 번식했었지만) 결국에는 상당히 변한 기후와 환경에 대처할 수 없어서 멸종하게 되었다. 홍수 자체가 지구의 표면을 상당히 바꾸어 버렸으며, 지구의 대기는 산소 압력의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동물과 사람이 그리 크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과 이전처럼 그리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말하는 “빙하 시대”에서 빙결의 과정과 관련한 문제와 같은, 격변의 다른 영향도 있다. 그 빙하시대는 홍수 이전이 아니라 홍수 이후이다. 그때에는 많은 활화산들이 활동을 하여 지독한 황폐가 있었으며, 원래는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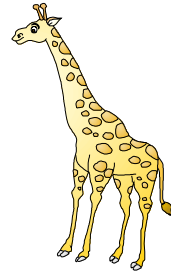


화석화된 삼엽충

이 삼엽충은 오하이오주의 Medusa에 있는 규화토(실리카) 채석장에서 발견되었다.

구조상 판(tectonic plate) 위에 땅이 놓여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개의 작은 판들로 쪼개지면서 대륙이 갈라졌다. 그것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된” 생물이라고 알려졌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질학적 주상도(geological column)는 여러 생물체의 연대에 대한 표준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심지어 탄소연대측정법에 의하더라도 많은 수의 화석 연대가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석이란, 전에는 살아있던 것들이 갑자기 뒤덮여 휩싸여서, 그들의 형태가 보존된 것이다. 거의 모든 화석들은 성경적 홍수의 결과물이다.



기린의 목이 긴 까닭은?

옛날에는 목이 짧았는데, 높은데 있는 풀을 먹기 위해 목을 높게 빼다보니까 지금처럼 길어졌다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학설을 용불용설이라고 한다. 이것은 요즈음 생물교과서에도 틀린 학설이라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정관념은 정말 무섭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학설임이 밝혀졌다. 학자들이 쥐의 꼬리를 잘라서 새끼를 낳게 하고 또 그 새끼의 꼬리를 또 자르고.... 이렇게 해 봤지만 계속 꼬리를 가지고 쥐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남 고성 지방의 돼지농장이 많은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만, 마치고 난 뒤에 돼지를 키우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했다. “돼지의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돼지가 태어나면 꼬리를 잘라 주는데, 만약 꼬리를 자른 돼지의 새끼가 꼬리 없이 태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리할까요?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기린의 목이 차차 길어졌다고 생각한 것은 목뼈의 수가 돼지, 소, 사람 등 다른 동물들과 같은 7개이기 때문이었다. 적자생존(환경에 잘 적응해 가는 놈이 생존한다)는 원리를 따르면 짧은 목의 기린보다 긴 목의 기린이 더 환경에 적응하기 좋을 것인가? 높은데 있는 먹이를 먹기 좋은 이점 외에는 대개가 단점 투성이이다. 포식자의 눈에 띄기가 너무 쉽고 목이 굵고 크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경우에 피가 머리로 다 몰려서 뇌출혈 걸리기가 아주 쉽게 된다. 귀여운 새끼를 한번 훑아 주려면 거의 목숨 걸고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기린이 고개를 숙여 물을 먹거나 아기를 훑아 주어도 뇌출혈 걸려 죽지 않는 것은 기린 목의 핏줄에 독특한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느 동물보다 혈압이 높은(높아야 되는-기린의 키가 5~6M임을 생각할때, 머리끝까지 피가 도착하려면 그렇지 않겠는가?) 기린의 목통에 있는 피가 고개를 숙일 때 머리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밸브가 달려 있다는 말이다. 즉, 고개를 들고 있을 때에는 다른 동물과 똑같은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실핏줄에서 동맥으로 모이는 부분의 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피가 머리로 몰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목이 짧은 동물은 당연히 이런 장치가 필요 없다. 옛날 초창기의 기린이 목이 짧을 때 없었던 이런 장치를 어느 정도 길이일 때 부착했겠는가? 또 누가 이런 수술을 일일이 해 주었을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기린의 목이 길어도 뇌출혈이 걸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치를 달아 주셨던 것이다.

사족)

몇년전 TV 다큐멘터리에서 5M가 넘는 기린이 약 1.8M 깊이의 냇물에 빠져 죽는 충격적인 장면을 본 일이 있다. 물가에서 먼 곳을 보던 기린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물에 빠졌던 것이다. 목이 너무 크고 길었던 기린은 그 큰 목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둥거리다가 그 접싯물(?)에 빠져 죽었던 것이다.

아! 모가지가 굵고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